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17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**2월 17일(목) 행사종료 후**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16.(수)	담당부서	투자정책과
담당과장	최영수 과장(044-203-4070)	담 당 자	주현수 서기관(044-203-4071) 정종윤 사무관(044-203-4072) 정 솔 사무관(044-203-4074)

대통령 주재 「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」 개최

-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들과의 소통 강화 -
- 외국인투자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 -

□ 정부는 **2월 17일**(목) **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**에서 「**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**」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행사에는 **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**(10인) 및 **외투기업인 대표**(24인)로 구성된 **업계 관계자** 34명과 **정부** 및 **투자유치기관**(KOTRA)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.

○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"K Dream"의 슬로건 하에 **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**을 촉진하기 위해, **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**의 **대화와 소통**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.

○ '19. 3월 첫 번째 개최에 이어 **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**에는 **코로나 19 대응** 및 **공급망 안정화**와 관련된 **백신**(한국화이자, 싸토리우스 등) 및 **소부장**(롬엔드하스, 유미코아 등) **기업들이 다수 참석**했다.

< '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' 행사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** : 2.17(목) 10:30 - 12:00 / 청와대 영빈관(2층)

○ **참석** : 정부, 투자유치기관, 외투업계 관계자 등 총 50여 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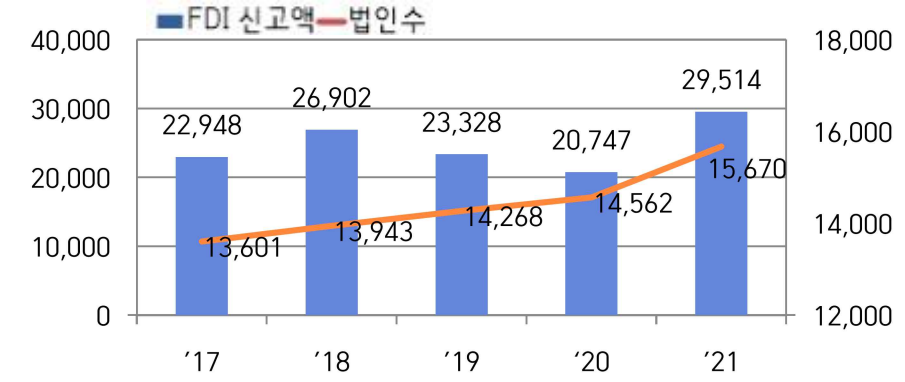
* ▲(정부) 산업·국토부 장관, 기재·복지·과기·문체부 차관 등 6명 ▲(투자유치기관) KOTRA 사장 등 3명 ▲(업계) 외투기업 대표, 주요 주한상의 9개소 및 외국기업협회 대표 등 34명

○ **행사구성** : ① 한국의 외투 정책 방향 발표 ② 외투기업 간담회(정책제언, 규제 등 애로 개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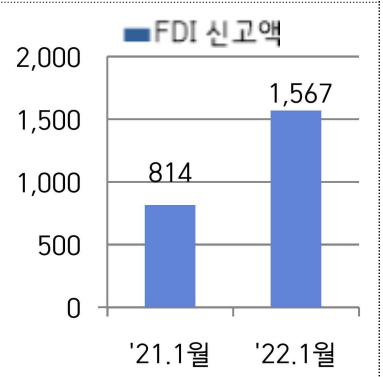
[최근의 외국인투자 성과 및 배경]

□ 이번 행사는 **2021년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불을 기록하였고,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**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다.

< 연도별(17~21) 신고액 / 외투기업 법인 수(누적) > * 단위 : 백만불, 개사



< '22 1월 실적 > * 단위 : 백만불,



○ 외국인투자는 **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**을 기록하며 한국의 **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***하고 있으며, 특히 **신산업 분야와 K-뉴딜 투자가 크게 확대**되는 등 **질적인 측면**에서도 **큰 성과**가 있었다.

* **(국내기여도)** 외투기업은 국내 전체 **매출의 10.9%, 고용의 5.4%** 차지 ('20년 기준)

< 최근 5년간 신산업 · K-뉴딜 분야 외국인투자 증가세 >

구분		`17	`18	`19	`20	`21	연평균 증가율
신산업	금액	75.8	119.5	77	84.2	134.4	92.5% 후15%
	비중	33.0%	44.4%	33.0%	40.6%	45.5%	
K-뉴딜	금액	22.2	44.9	30.8	31.6	84.4	+40%
	비중	9.7%	16.7%	13.2%	15.2%	28.7%	

○ 또한, 일본의 **수출제한** 및 **코로나19** 이후 전세계적인 **공급망 불안** 상황에서, **소재·부품·장비**(소부장) **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**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

* **(주요사례) ▲(소부장)** 듀폰(반도체, 미국), 칸토덴카(반도체, 일본), 베바스토(배터리, 독일), ASM(희토류, 호주) / **▲(백신)** 싸이티바(mRNA 기반, 미국), 싸토리우스(바이러스벡터 기반, 독일)

□ 지난해 **사상 최대 외투성과의 배경**에는 **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**와 더불어 **효과적인 정부정책**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○ 한국 경제는 **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**을 달성하고 있으며, **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**과 **FTA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접근성**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.

* **(주요 제조산업 점유율) 플렉시블 OLED** 78.1% / **D램** 71.6% / **TV** 48.4% / **낸드플래시** 44.5% / **EV배터리** 34.7% / **조선** 43%
* **('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) 전체 1위** : 특허활동 1위, 제조업 부가가치 2위, R&D 집중도 2위, 첨단기술 집중도 4위
* **(시장접근성) FTA 체결국 글로벌 GDP 비중 : '16년 78.8% → '21년 85.0%**

○ 더불어, 정부는 **현금지원 예산증액,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** 등의 **지원제도 개선, 전방위적 투자유치**(IR) **활동, 외투기업 애로 지원** 등 지속적으로 **투자환경을 개선**하고 있다.

* **(현금지원 예산)** '17년 **100억**→'22년 **500억원** / **(세제특례 연장)** '2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(19%) 적용
* **(고위급 투자유치행사)** '19.3. **외국인투자기업과의 대화** → '21.5. **한미 글로벌 백신파트너십** → '21.9. **한미 백신협력 협약식** 등
* **(애로지원) '17~'21년 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 총 1,609건**

[2022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]

□ 이번 행사에서 **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**'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'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**에 **기여하는 투자유치'**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.

① **재정지원**(현금·입지지원)을 통해 **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**하며, **신성장원천기술** 및 **국가전략기술** 등에 대한 **세제지원도 확대**된다.

○ 올해 **현금지원 예산 500억 원**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하여, ❶**공급망 안정화**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**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%**까지 **지원**하고, ❷**탄소중립**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**지원금이 가산**된다.

○ **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**을 위해 **총 321억 원을 지원**하며, **공급망 안정**과 **탄소중립** 투자 모두에 대해 **최대한도인 100%의 감면율이 적용**된다.

○ **시설 및 R&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**이 되는 **신성장원천기술 항목**도 기존 **45개에서 65개 분야로** 늘어나며, **반도체·배터리·백신** 등 **국가전략기술**에 대해서는 **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**된다.

② **투자환경 개선**을 위해, 외투기업과의 **정례소통, 고충처리 역량 제고**를 통한 **기업 애로**의 **적시 발굴·지원환경**과 **규제 챌린지** 등 **우호적 규제환경 조성**을 위한 **범부처 노력**도 지속한다.

○ **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*** 회의, **주한상의 간담회** 등을 통해 **소통을 강화**하며, **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**(14→19명)과 노동·환경 등 **자문위원**(19→50명) **보강**으로 **전문성**도 **제고**한다.

* **(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** 협의체로, **미국·유럽(ECCK, 獨, 佛, 英)·일본·중국 주한상의, 옴부즈만 및 관계부처 국장급**으로 구성

○ 여러 부처가 관련된 **복잡한 다부처 규제**에 대해서는 **규제 챌린지** 등을 활용하여 **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**해 나갈 예정이다.

③ BIG3, **신산업, 탄소중립**과 **수소경제** 등 **전략적 투자분야**에 대해서, **주요국·권역을 중심**으로 **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**도 **전개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어 진행된 **간담회**에서는, **주요 주한상의**와 **외투기업 대표** 등 **업계 관계자**들이 **수입통관·출입국절차 간소화** 등 **규제완화** 및 **인센티브 확대** 등을 건의했고, 이에 대한 **관계부처 장·차관**의 **답변이 이어졌다.**

○ **문승욱 장관**은 "**외국인투자유치 확대**와 **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**을 위해, **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**"고 강조하였다.

○ **각국 주한상의** 및 **외투기업인**들이 건의한 각종 **제도와 규제환경 개선**을 위해서도 "**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**"임을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주현수 서기관(☎ 044-203-40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